

96년 경제성장률 7.3% 전망

통계청, 경상적자 59억달러 예상 ... 민간소비 7.2% 증가

96년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(GDP)을 기준으로 7.3% 성장하고, 경상수지는 5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, 소비자물가는 95년말 대비 4.5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.

통계청이 발표한 「96년 경제전망」에 따르면, 96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의 둔화로 GDP성장률이 7.3%로 95년의 9.3%(추정치)에 비해 2%포인트 둔화될 전망이다.

한국의 경제전망(1996)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, 억달러)

구 분	1995	1996
G D P	9.3	7.3
민 간 소 비	8.0	7.2
고 정 투 자	13.8	8.0
(설 비)	20.0	8.3
(건 설)	9.2	7.8
총 수 출	25.1	12.1
총 수 입	23.9	11.8
경 상 수 지	▽79.8	▽58.6
무 역 수 지	▽45.0	▽25.3
상 품 수 출	1,245.4	1,429.7
(증 가 율)	(33.0)	(14.8)
상 품 수 입	1,290.4	1,455.0
(증 가 율)	(33.3)	(12.8)
무 역 외 수 지	▽30.8	▽33.1
소 비 자 물 가 지 수	4.5	4.5
생 산 자 물 가 지 수	4.7	3.3

주) 상품 수출입은국제수지기준이며, 물가지수는 연평균 및 전년동기대비임.

설비투자증가율은 8.3%로 95년의 20.0%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, 이는 9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생산 설비 확충이 95년 상당부분 이뤄진데다 96년 경기의 하강세 진입에 따른 투자심리 저하가 겹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또 건설투자는 미분양아파트 적체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로 건축부문은 부진하겠으나 도로·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중심으로 한 토목부문의 증가에 힘입어 7.8% 증가할 전망이다.

민간소비는 성장둔화의 영향으로 95년의 8.0%보다 낮은 7.2%의 증가세가 예상된다.

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적자의 개선으로 95년의 80억달러 적자에서 59억달러 적자로 적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.

특히 무역수지(국제수지 기준)의 경우 수출 증가세의 둔화폭보다 자본재와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증가세의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커 무역수지의 적자규모가 25억달러로 전년의 45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.

소비자물가는 95년말에 비해 4.5% 정도 상승, 95년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.

한편, 통계청은 그동안 91년부터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개발, 경제전망을 하고 이를 내부참고자료로 활용해오다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대외에 발표기로 했다.

<화학저널 1996/2/5>